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한반도의 밥상을 점령한 고춧가루

대항해 시대가 열리던 초기, 포르투갈에 선수를 뽑긴 에스파냐 왕실은 초조했다.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그들 앞에 나타난 인물은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다. 콜럼버스는 금과 향신료가 넘치는 인도를 포르투갈에 앞서 에스파냐에게 바치겠노라며 엄청난 후원을 요구했다. 에스파냐의 이사벨 여왕은 고심 끝에 콜럼버스의 제안을 수락하고 후원자가 되어 주기로 한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보니 후원을 한 쪽도, 후원을 받은 쪽도 초조하긴 마찬가지였다. 리스본을 출발한 콜럼버스는 기존의 항로대로 뱃머리를 남쪽으로 돌리는 대신 계속해서 서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불과 70여 일 만인 1492년 10월 12일 새로운 대륙에 닿았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땅은 인도가 아니었고 금과 후추 대신 그의 배에 실린 것은 감자와 고추였다. 콜럼버스는 고추를 붉은 후추라는 뜻에서 '레드 페퍼' (Red pepper)로 불렀고 자신의 '항해 일지'에 '후추보다 더 좋은 향신료'라고 적었다. 확증 편향에 가까운 콜럼버스의 착각은 400여 년이 흐른 뒤 한반도의 식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원전 8000-7000년경부터 페루 산

악 지대에서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지는 고추는 어쩌면 콜럼버스 덕분에 세계 시장에 데뷔를 하게 되는데, 유럽 추에 비해 맵고 향이 적은 데다 가공(분쇄)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고추는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에 의해 다시 긴 항해를 시작한다. 아프리카, 인도, 필리핀, 중국 남부 해안, 마카오를 거쳐 일본 구슈 등지로 전파된다. 1543년 일본에 전파된 고추는 부산에 있던 왜관을 통해 급기야 한반도에까지 들어오게 된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서 처음 발견한 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후였다.

남미가 원산지인 고추는 한반도에서 잘 자랐다. 하지만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일본이 조선인을 독살할 목적으로 가져온 독초로 취급했다. 1614년 이수광이 쓴 '지봉유설'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남만초(고추)에는 강한 독이 있는데, 왜국(일본)에서 처음 들어왔다. 그래서 왜개자라는 속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식물을 심어 키우는 주막에서 그 강렬한 맛을 이용하여 소주에 넣어 팔기도 하는데, 이것을 마시고 죽은 자도 있다.'

음식이나 식재료가 전래되는 과정과 대중화되는 과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전래는 어떤 목적과 사건에 의해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반면 대중의 선택과 수용은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이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 독초로 취급받던 고추가 한반도에 온전히 뿌리내리게 된 계기는 김치를 만나면서부터다.

삼국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김치의 원형은 채소를 오래 두고 먹기 위한 단순한 소금 절임이었다. 이후 발효를 통해 감칠맛이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발효를 발견한 이후로 마늘, 생강, 산초, 파 등의 향신료가 더해졌으나 고추만큼 극적이 없었다. 고추의 매운맛이 젓갈의 부패를 막고 잡냄새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 더불어 붉은색까지 더해져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통배추 김치가 탄생하게 된다.

김치와 더불어 고추가 대중화된 계기는 고추장을 만들면서부터다. 된장과 간장 같은 장류는 중국과 일본에도 흔하지만 고춧가루를 이용한 고추장은 우리만의 독특한 발효 음식이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영조(1724-1776년 재위)의 수라상에는 고추장이 올랐고, 이후 영조는 고추장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한편 1816년에 편찬된 '농가월령가' 3월령에는 '인간의 요긴한 일 장 담그는 일이다. 소금을 미리 받아 법대로 담그리라. 고추장 두부장도 맛'으로 갖춰 '하소'라는 대목이 나온다. 결국 고추장의 맵고 달짝지근한 감칠맛은 채 1세기도 지나지 않아 임금에서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조선에 살던 모든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김치와 결합되고 고추장을 담기 시작하면서 고추는 한반도의 밥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그 위세가 지나쳐 사투 걱정스러운 지경이다. 대중음식점의 상차림이나 반찬 가게의 진열장을 보면 온통 붉은색 일색이다. 고춧가루 특유의 칼칼한 매운맛 대신 캡사이신의 통각에 중독된 대중의 감각은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고 있다.

덕분에 한국인의 고추 소비량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고추는 채소류 가운데 우리 농가 소득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작물이 되었다. 유럽인들에게 신세계를 소개한 콜럼버스조차도 이러한 사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칼럼니스트

의료칼럼



김수관 조선대치과병원장

악교정 수술과 치아 교정

턱 변형의 원인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다. 하지만 후천적 원인으로는 턱을 꺾거나 한쪽으로 씹는 등의 잘못된 습관이 성장기에 지속되는 경우, 혹은 외상으로 인해 턱 변형이 유발될 수도 있다. 턱 변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위턱뼈와 아래턱뼈의 위치 부조화이다. 서양에서는 위턱뼈가 아래턱뼈보다 과도하게 돌출되는 경우가 많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반대로 아래턱뼈가 위턱뼈보다 과도하게 돌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흔히 주걱턱이라 불리는 특징적인 얼굴이 된다.

두 번째는 위턱뼈나 아래턱뼈의 비대칭이다. 이런 턱 변형이 있는 경우, 얼굴형의 문제와 더불어 치아의 부정 교합이 발생하여 씹기가 어렵다. 턱 변형이 있는 경우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악골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X-ray 검사와 CT 촬영을 하고, 교합 관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악골 및 치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다.

겉보기에 턱이 변형돼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뼈의 변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근육의 문제나 치아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치료하지 않는다. 또 턱의 변형이 있다 하더라도 심미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턱 변형에 의한 치아 위치의 부조화가 교정치료를 개선될 정도로 심하지 않다면 수술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턱뼈의 문제가 확연하게 있고, 교정만으로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정밀한 검사를 통해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턱뼈의 위치가 비정상적이고, 동시에 위아래 치아가 잘 맞지 않고, 심미적으로 문제가 심하다면 수술을 하는 게 맞다.

악교정 수술이란 쉽게 말해 악골, 턱뼈의 변형을 수술을 통해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 치아 교정은 말 그대로 치아의 위치만을 바로잡아 주는 치료법이다. 이것은 치아만을 이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악골 자체에 변형이 있는 경우 악골의 위치까지 교정시킬 수 없다.

따라서 악골 자체에 변형이 있는 경우는 악교정 수술이 필요하게 된다.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악골 자체에 변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술로 위턱과 아래턱을 절골시켜서 올바른 위치로 턱뼈를 고정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악교정 수술은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현재 통용되는 술식은 정확도가 매우 높아졌고, 또한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턱 변형의 주요 원인은 유전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게 되면, 수술 후에도 다시 변형이 올 수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장이 완전히 완료된 시기에 악교정 수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아래 턱이 잘 맞지 않거나 얼굴의 대칭이 조화롭지 못한 경우, 턱뼈의 위치가 비정상적이어서 인상이 강해 보이는 경우 등은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볼 만하다. 외과가 사회생활에 있어 전부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라면 적극적인 진료와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기고



박성수 광주전남연구원장

무안국제공항 통합 왜 2021년인가

에 광주전남연구원은 핵심 현안인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의 통합 시기 연구에 착수했다.

양 공항의 통합은 공항 이용객의 편의성, 나아가 우리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지렛대이다. 우선 양 공항의 통합은 지역민의 국내·국제선 이용 연계성 강화로 공항 이용의 편리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을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 제고 뿐 아니라 서남권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중추 역할을 차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광주군공항 이전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공항 중전 부지를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고자 하는 광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다.

양 공항의 통합 시기 연구는 다양한 통합 전제 조건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 요컨대 관리동 신축, 공용 체크인카운터 도입, 국제선 도착 컨베이어 확충, 주차장 확보, 국제선 정사 확충 등 무안국제공항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요 시기를 분석했다. 또한 대중교통 노선연장, 셔틀버스 증편, 도심공항터미널 개설 등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시기를 검토했다. 더불어 광주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에 2년, 중전 부지 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추가적으로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감안했다.

이를 통해 세 가지 통합시기 대안도 출했다. 1안은 공항 편의시설 확충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최소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2021년, 2안은 새만금 신공항 개항 시기인 2023년, 3안은 무안국제공항 경유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 개통 시기인 2025년이었다. 그리고 공항 통합의 필요성, 공항 이용의 편의성, 지자체의 추진 의지, 대내외 여건 변화 대응,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 군공항 이전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최적의 양 공항 통합 시기 대안은 2021년이었다.

'2021년 양공항 통합'은 다양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첫째, 양 공항 통합의 필요성과 목적을 가장 적절하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거점 공항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항 이용 편의시설 확충과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민선 7기 시도 상생 협력의 상징성 부여와 시·도간 소모적 논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군공항 이전시기 예측 및 추진 신뢰성·법적 이행 기간의 확보가 가능해 군공항 이전 당위성 및 정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새만금 신공항 개항 이전 공항 통합·운영으로 국토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서의 입지 구축이 가능하다. 여섯째, 남 정부정책인 한반도 신경제 구상 및 남방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일곱째, 국토 서남권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대륙·해양 연계 '서해 공항'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여덟째, 흑산공항 개항에 따른 연계 운항이 가능하며, 특히 2021년 공항 통합을 명분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의 조기 완공을 중앙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물론 단기간에 양 공항의 통합은 일부 지역민들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항 통합에 따른 지역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이 조기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과 접근성 향상 등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21년 양 공항 통합 합의는 광주의 성장 거점 조성, 서남권 거점 공항 활성화, 나아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광주전남연구원의 중점 연구 과제 중 하나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공항 중전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지역민들의 지혜를 모으는데 있다.

社說

'전두환 광주 재판' 진상 규명 마지막 기회다

5·18 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을 주도하고도 자신의 죄과를 부정하면서 왜곡을 일삼아 온 전두환 전 대통령이 38년 만에 광주의 재판정에 선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돼 첫 재판이 열리는 것이다.

광주지법은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이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전 씨는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나 연기를 신청해 그동안 재판이 지연됐다.

이와 관련 전 씨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27일 재판에 출석하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전 씨가 법정에 다시 서게 된 것은 1995년 12·12 군사 반란, 5·18 당시 내란,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 23년 만이다.

이는 광주지검이 광주일보가 보도한 '주한미대사관 비밀 전문' 등을 토대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

해 역사 왜곡에 대한 단죄에 나섰다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전두환 신군부가 80년 당시 광주에서 시위대가 인민재판을 하거나 북한의 남침 징후가 있다는 등 거짓 정보를 미국에 흘린 정황이 5·18광주민중화운동기록관의 미국 정부 문서 분석 결과 확인됐다. 어제는 시민 단체들이 최근 공개된 1987년 6월 항쟁 진압 계획 문건과 관련 내란 예비 음모 혐의를 수사해 달라며 전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전 씨의 출석 결정은 재판부의 강제 구인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재판정에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간의 행태로 봐선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전 씨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릴 생각일랑 말고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역사와 국민 앞에 죄값을 지라야 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5·18 진상 규명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단죄로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백남기 씨 사망의 진실...다신 이런 일 없도록

3년여만의 일이다. 날짜로는 꼭 1011일 만이다. 경찰청 인권 침해 사건 진상 조사위는 어제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경찰과 박근혜 청와대가 고 백남기 씨의 수 소 과정에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보성이 고항인 고 백남기 씨를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직사한 고압의 물대포에 맞아 중대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수술을 받은 백 씨는 10개월간 혼수상태로 연명 치료를 받다 아듬해 9월 25일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당시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무리한 물대포 운영을 문제 삼기보다 일간 베스트 등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제기한 '빨간 우의 가격설'에 중점을 뒀다. 이를 근거로 부검 영장을 신청했

고, 무리하게 영장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집도의가 백 씨의 사망 원인을 '외인 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재한 것도 문제였다. 당시 경찰이나 청와대는 백 씨의 생존 여부보다 사망 시를 '정치적 후폭풍'을 더 우려했더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다만 이번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 백 씨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사망했다는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이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취하를 주문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재발 방지책이나 지침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금 상태로는 언젠가 경찰의 과잉 진압과 '제2의 백남기 농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대포를 쏘지워야 하는 책임은 몰어 징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아는 여행사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왜소한 체구의 할머니가 들어섰다. "오늘은 가져갈 게 없네요. 며칠 전 할아버지가 췌장기셨거든요." 사장 이렇게 말하는데도 할머니는 발을 떼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그러자 사장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신문 봉지를 췌장기 준다. 할머니는 고맙다면서도 속스러워 했다.

"할머니는 많이 드려도 무거워서 못 가져가시잖아요." 사장의 말에 할머니가 답한다. "무거워도 괜찮아. 한꺼번에 가져가면 이렇게 더운 날에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

폐지 줍는 할머니

니까." 설명을 들어 보니 이들 노인 두 분이 며칠에 한 번씩 사무실에 들러 폐지를 수거해 가는 모양이었다. 폭염경보가 내린 날이었는데, 시원한 물 한 잔 드시라는 말도 못한 게 마음에 걸렸다.

사람 일이 참 묘한 게 그 할머니를 만나고 난 뒤부터 운전을 할 때면, 그 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폐지 줍는 할머니'가 유난히 자주 눈에 띄었다. 자기 체구보다 몇 배 더 큰 리어카를 힘들게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안쓰러웠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폐지를 주

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은 800명이나 된다고 한다. 주당 34시간 폐지를 주워 벌어들이는 돈은 5만~20만 원에 불과한데, 폐지 가격은 지난해 kg당 170원에서 올해는 50원으로 떨어졌단다.

물론 폐지 줍는 노인을 위해 콜스카프나 쉼터 등을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다. 어느 사회적 기업은 손수레에 광고판을 달아 주고 광고주로부터 받은 돈(2800만 원)을 이들 노인들(100명)에게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다. 늘 종이박스 등을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폐지 수거 노인들을 만나면 차를 멈추고 리어카에 실어 주는 어느 부부부 알고 있다. 또 다른 이는 정기적으로 집에 찾아오는 할머니에게 폐지 수거 독점권(?)을 주고 있다.

그러고 보니 회사나 각 가정에서 폐지 수거 노인들과 작은 연결 고리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여행사 사장님은 할머니 방문 날짜를 고정시키기로 했고, 나는 여행사에 폐지를 가져다 두기로 했다.

/김미은 문화부장mekim@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政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원국 | 220-0515 문화사업국 |
| 220-0649 |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220-0632 | 220-0652 | 220-9600 | 220-0551 |
| 220-0663 | 220-0692 | (FAX 222-0195) | (FAX 222-0195) |
| 220-0664 | 220-0693 |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220-0642 | 220-0697 | (FA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